

독립마산예수교회의 설립 · 활동과 기독교 사회윤리적 고찰

- 1920~30년대 자치·자유교회 운동의 재검토*

홍성표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마산교회 분규의 발단과 전개

1. 분규의 발단과 경남노회로의 확산(1926년 10월~1926년 12월)
2. 마산교회 교인들과 맹호은 선교사의 대립(1927년 1월~1927년 8월)
3. 경남노회 재판국의 판결과 자치파의 분열(1927년 8월~1927년 10월)

III. 독립마산예수교회 설립과 활동

1. 지역사회로의 분규 확산과 독립파의 독립선언
(1927년 11월~1928년 1월)
2. 마산 지역 민족운동에의 참여와 예배당 건립
(1928년 1월~1928년 11월)
3. 신축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마산 지역 민족운동(1928년 10월~)

IV. 마산교회 분규와 독립마산예수교회의 분석과 평가

1. 마산교회 분규의 전개와 책임 소재
2. 마산교회 분규의 언론 보도 양상과 지역사회 반응
3. 독립마산예수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4. 마산교회 분규에 관한 기존 교회사 서술의 비판적 검토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14>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8371)

• ABSTRACT •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Masan Jesus Church: A Christian Social Ethics Perspective - A Reexamination of the Autonomous and Free Church Movement in the 1920s-1930s

Visiting Prof., Hong, Seongpyo (Yonsei University)

The Masan Church dispute transcended an internal congregational conflict to involve the Gyeongnam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emerging as a matter of concern for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Sparked by a group of elders' rejection of Pastor Park Seung-myeong, the congregation initially sought resolution through denominational procedures. However, the Presbytery's inappropriate intervention, coupled with the biased judgment of the Gener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escalated the dispute and ultimately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hurch. The controversy concluded when the Presbytery refused to comply with the General Assembly's decision to conduct a reinvestigation.

Contrary to prevailing interpretations, Pastor Park was not the central actor in this process. Lay members played a decisive role in both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and the founding of the Independent Masan Jesus Church. Their movement aimed to move beyond a pastor-centric ecclesiastical structure and to create a church that reflected the will and agency of the laity. In this respect, the Independent Masan Jesus Church exemplifies a significant lay-led church reform movement and Christian social activism that engaged local communities in Korea during the 1920s and 1930s.

Key words: Minjung Church, Lay-led Church Reform Movement, Christian Socialism, Masan Branch of Singanhoe, Masan Branch of Geunuhoe, Masan-Changwon Social Organizations Association, Park Seung-myeong

I. 들어가는 말

일제 강점기 한국 교회는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이후, 일제의 문화 통치 아래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신학적 입장의 차이와 교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선교사 중심의 교회 운영에 대한 반발로 반(反)선교사 운동과 자치·자유교회 운동이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의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는 신학·제도·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치·자유교회 운동은 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제도권 교회의 교권(敎權)에 저항하던 소수 기독교인들이 ‘자치’ 또는 ‘자유’를 주장하며 별도의 교회를 조직한 것이었다.¹⁾ 자치·자유교회 운동은 당시 제도권 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내부 개혁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음에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교권주의·교회 민주성·평신도 참여·교회의 사회적 책임 등과 연결해 역사적 교훈을 찾으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1920~30년대 자치·자유교회 운동을 다시 살피는 일은 한국 교회의 현재적 과제를 과거의 역사에서 성찰하는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920~30년대 자치·자유교회 운동의 한 사례로 언급되어 온 독립마산예수교회에 주목한다.²⁾

교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립마산예수교회를 1928년 마산교회³⁾의

-
- 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2(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2), 194.
 - 2) 마산교회 ‘독립파가 설립한 교회의 명칭은 독립마산예수교회, 독립교회, 마산독립예수교회, 마산예수교독립파교회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독립마산예수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독립교회로 줄여 사용하였다.
 - 3) 마산교회는 1901년 마산에서 설립된 두 교회를 합쳐 1903년 마산포교회로 시작되었으며, 마산교회로 부르기도 하다가 1919년 ‘문창예배당’을 신축하고 이전하면서 문창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마산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문

분규를 계기로 설립된, 박승명 목사 중심의 반(反)선교사적 교회로 규정한다. 이들이 제창한 4대 강령에 의하면 이 교회는 형식적 교리와 교권적 정치를 부인하고 순수한 ‘자유’ 신앙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자유교회와 유사했으나, 다른 지역과 교회로 확산되지 않고 단일교회로 유지되었다.⁴⁾ 독립마산예수교회를 직접 다룬 연구는 드물며, 그나마 비교적 상세한 연구로 김기대의 연구가 있다. 그는 이 교회를 선교사 중심의 교회 제도를 반대하고 신학과 교권을 선교사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독립교회 운동의 일부로 설명하였다.

당시 마산 문창교회를 맡고 있던 박승명 목사는 평남 출신으로 (중략)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주로 청년교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자 교회안에서 박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생겨났다. 원로급은 박목사에 반대했고 청년층은 박목사를 옹호했다. 이 사건은 노회와 총회까지 파급되어 박승명 목사를 지지하는 서북계 총회와 반대하는 경남노회 사이의 분쟁 기미까지 나타났다. 결국 박승명 목사는 일부 지지자들과 문창교회를 떠나 별도의 독립교회를 세우고 그 명칭을 마산예수교회라고 하였다.⁵⁾

김기대에 따르면 마산교회 분열의 배경에는 지역성과 선교부 간 갈등이 있었다. 마산은 호주 선교부 관할지역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한 미국 북장로교 세력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갈등이 발생했다.⁶⁾ 이와 관련하여 민경배는 서북과 비서북 지역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박승명 목사를

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67-69; 98-99.

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2(개정판)』, 197-198.

5)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71-72.

6) 위의 논문, 72-73.

비판했다.

서북 출신으로 마산교회 위임목사가 되었던 것인데, 그 교회가 그의 실덕(失德)을 추궁할 때, 그것을 교묘하게 비서북인의 증상모략으로 반격하여,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였던 인물로 항상 수적 열세에 몰리던 남쪽의 교회들이 이 서북인 출신 박승명의 실덕을 옹호하는 듯한 서북계 장악의 총회에 불만이 충천했지만 손을 쓸길이 없었다.⁷⁾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기대는 박승명이 “교회를 분립해 나오면 서 선교사의 지배를 벗어난 한국인의 교회를 세우려 했던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⁸⁾ 호주장로교회 공식 선교 기록에서 마산교회 분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선교사 테이트(Maysie G. Tait)는 1931년 여선교 연합회 잡지 『크로니클(The Chronicle)』 기고문에서 이 사건을 ‘한 목회자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였다.⁹⁾ 이렇듯 기존 논의는 대체로 성추문으로 축출된 박승명이 중심이 되어 반선교사·반교권적 교회를 세웠다는 도식(圖式)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성추문으로 교회에서 축출된 목사가 반선교사·반교권적 가치를 내세워 교회를 설립했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훗날 해방공간의 기독교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강성갑 목사가 마산상업학교 재학 시절 독립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실은, 독립교회를 박승명의 일탈적 운동으로 보는 기존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¹⁰⁾

7)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230.

8)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73.

9) 양명득 편역, 『호주선교사 프레더릭 매크레이, 이다 맥피, 메이지 테이트』 (고양: 나눔사, 2024), 276-277.

10) 홍성표, “연회전문의 ‘기독교주의’와 강성갑목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천,” 『기독교 사회윤리』 56(2023), 442.

1926년부터 전개된 마산교회의 분규와 그에 따른 독립교회의 설립 및 활동은, 기존 교회사에서의 시각과는 달리 단순한 교회 내부의 사건은 아니었다. 이는 마산 지역사회와 조선의 일반 언론이 주목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교계의 『기독신보』가 관련 보도를 회피한 반면, 『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 등 주요 언론은 분규의 발단과 전개, 독립교회의 설립과 활동 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독립교회의 설립과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외일보』 마산지국 기자는 독립교회를 “추악한 현대교회를 탈출한 조선 특산물”¹¹⁾ 『동아일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고자 한 굳은 뜻”을 가진 교회로 규정했다.¹²⁾

본 논문은 교회사 내부의 서술과 당시 일반 언론 보도 사이의 큰 간극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기존 교회사에서는 독립교회의 설립을 ‘박승명 목사의 성추문에서 비롯한 교회분규’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당시 언론이 왜 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분규의 실제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어떠한지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남노회록·장로회 총회록 등 교회 내부 자료뿐 아니라, 침묵 또는 선택적 보도로 일관한 『기독신보』, 적극적 보도를 이어간 『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분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가능한 한 다양한 사료를 통해 무엇보다 먼저 사건의 실체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마산예수교회의 설립과 활동을 재평가함으로써, 당시 독립교회 운동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미,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11) ‘馬山獨立教會 一週紀念 準備’, 『중외일보』 1928년 11월 24일자.

12) ‘馬山獨立教會 이주년 기념식’, 『동아일보』 1929년 12월 2일자.

도출하고자 한다.

II. 마산교회 분규의 발단과 전개

1. 분규의 발단과 경남노회로의 확산(1926년 10월 ~ 1926년 12월)

마산교회 분규의 발단이 된 인물로 알려진 박승명은 한석진, 박정찬에 이어서 1925년 1월 마산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어 선교사 멩호은(J.F.L. Macrae)과 함께 목회했다.¹³⁾ 박승명의 부임 이후 시작된 새벽기도와 저녁 성경공부에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여 “과연 천국이 임한 듯하며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이도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¹⁴⁾ 그러나, 당회원 중에서 이상소, 이순필 장로가 박승명을 배척하기 시작했다.¹⁵⁾ 보도에 따르면 박승명이 부인전도연합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승명이 “교회 부인들의 경제관란 상태를 고찰하고 경남부인전도연합회에 대하여 찬성의 성의가 박약하다고 하여 해회(該會) 간부 기인(幾人)과 장로 모파가 공모하여 목사를 배척”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전도회를 탈퇴했다.¹⁶⁾ 박승명은 이상소, 이순필 장로가 자신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26년 10월 위임목사 직을 사면(辭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당회에 제출하였다. 교인들은 사건의 전말

13)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263.

14) ‘마산교우의 분홍’, 『기독신보』 1925년 4월 1일자.

15) 마산교회의 분규 당시 당회를 구성하고 있던 장로들은 임직(任職) 순서대로 손덕우(1916년 1월~1927년 11월, 탈퇴, 자치 선언, 제명), 이상소(1919년 1월~1926년 11월 3일 사임, 1927년 9월 1일~1929년 7월 휴직), 박경조(1924년 1월~1936년 2월), 김영규(1925년 7월~1930년 12월 대구 남산정교회로 이명), 이순필(1925년 7월~1926년 11월 3일 사임, 1927년 9월 1일~1952년 2월 사망)등 모두 5명이었다.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266.

16) ‘責任長老謝過로 問題는 圓滿解決’, 『동아일보』 1926년 10월 27일자; ‘馬山教會 紛糾 遂解決 問題長老의 辭免受理와 不正分子의 責罰로’, 『조선일보』 1926년 11월 20일자.

을 조사한 후, 위세를 부리고 있는 일부 장로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사를 배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상소, 이순필의 장로직 사임을 권고하였다. 이상소, 이순필 장로는 공동처리회에서 무리하게 박 목사를 배척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죄과(罪科)임을 자각(自覺)하고 사과하며, 박 목사 사면 문제는 취소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박승명의 사면을 둘러싼 문제는 일단 마무리되었다. 언론은 교인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교인들이 교회의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보도하였다.

모 교인측의 담(談)에 의하면 급변 해결은 교회 현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상적 해결에 불과하고 당회 모파의 세력으로 교회 모든 권리를 무리하게 좌우하는데 분개한 교인들은 하시든지 모든 죄상을 조사 폭로시켜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는 듯 하다더라.¹⁷⁾

박승명의 위임목사직 사면을 둘러싼 다수의 교인들과 일부 장로들의 대립은 교회의 공적 절차인 공동처리회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나, 이어서 박승명에 대한 추문(醜聞)이 발생했다. 박승명과 반목하고 있던 윤덕이, 이옥동, 신재선 등이 박 목사가 이악이라는 여자와 추행이 있었으며, 윤덕이에게 만행을 가하려다가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¹⁸⁾ 이상소 장로의 보고를 받은 마산교회 당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진상을 조사하였다.¹⁹⁾ 조사한 결과 박승명의 성추문은 사실무근이

17) ‘責任長老謝過로 問題는 圓滿解決, 아즉 一部에서는 將來를 注目’, 『동아일보』 1926년 10월 27일자.

18) ‘馬山教會 紛糾遂解決 問題長老의 辭免受理와 不正分子의 責罰로’, 『조선일보』 1926년 11월 20일자; ‘教會裁判廷이 拳鬪의 修羅場, 老會長을 逐出하고’, 『동아일보』 1926년 12월 3일자.

19) 『문창교회 100년사』에서는 당회록을 인용하여, 11월 5일 당회에서 교인 중 5명을 선택하여 당회를 도와서 조사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며 오히려 윤덕이, 이옥동 등이 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는 마산교회 당회 및 공동처리회 등 교회 내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박승명을 무고한 윤덕이, 이옥동 등이 처벌을 받고 문제를 일으킨 이상소, 이순필 장로가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산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법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다. 필요한 조사를 거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맹호은 선교사의 사회로 적법한 공동처리회를 개최하여 이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나, 경남노회장 김길창이 마산에 와서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마산교회의 문제는 경남노회의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마산지국 기자는 “원래 마산교회의 조사(助事)로서 동교회의 은택으로 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되어 현재 경남노회장으로 가장 세력자 연(然)하는” 김길창이, “이씨의 총복으로 매수되어야 부산목사회의 특과원이라 사칭하고 마산에 와서 교회의 일에 무리한 간섭을 하라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하였다.²⁰⁾

마산교회 당회의 판결에 불복한 윤덕이는 박승명을 상대로, 이옥동은 마산교회 당회를 상대로 하여 경남노회에 공소(公訴)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마산교회 공동처리회원 일동은 마산교회 문제에 무리하게 개입한 노회장 김길창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마산교회 교인들로부터 3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남노회는 1926년 11월 30일 저녁 마산교회 문창예배당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하였으나,²¹⁾ 교인들의 항의로 임시노회는 무산되었다.²²⁾ 경남노회장 김길창의 잘못된 개입으로 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한 마산교회 교인들은, 임시노회가 무산된 이후 1926년 12월

『문창교회 100년사』, 106.

20) ‘馬山教會의 紛糾’, 『조선일보』 1926년 12월 25일자.

21) (조선예수교 장로회)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임시회 회록」 1.

22) ‘教會裁判廷이 拳鬪의 修羅場, 老會長을 逐出하고’, 『동아일보』 1926년 12월 3일자.

6일 맹호은의 사회로 공동처리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처리회에서는 양 이 씨파에 가담한 교인들을 문책하고, 마산교회의 ‘분규 전말 성명서’를 전 조선교회와 노회에 발송하고, 교회 헌법에 달통(達通)한 이로 변호인을 대립(代立)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²³⁾ 『조선일보』 마산지국의 기사는 분규의 원인을 제공한 이상소, 이순필 장로가 이른바 웅서지간(翁壻之間), 즉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며 그들의 딸과 아내가 관련된 사건으로, 이들이 “두 여자를 충동하여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경남노회에 고소를 제기”하게 했으며, 두 장로에게 영합한 경남노회장 김길창의 잘못된 개입이 마산교회 문제를 더욱 확대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²⁴⁾

1927년 1월 4일 부산진예배당에서 개최된 경남노회의 주요한 과제는 마산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노회원들은 마산교회와 관련한 사건들을 임사부(任事部)로 보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²⁵⁾ 매건시(J. N. Mackenzie)를 부장으로 하고 김길창 등 6명으로 구성된 임사부는 박승명을 불러 취조하는 등 박승명의 음행설에 대해 집중하여 심리하였다. 임사부에서는 박승명의 음행설에 대해 증거는 부족하지만 위증(僞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결국 박승명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박승명은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노회는 그의 인책사임(引責辭任)을 권고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마산교회 교인들이 김길창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는 “소송의 성질이 아님으로 그 소장(訴狀)은 반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²⁶⁾

23) ‘紛糾中の 馬山教會 共同處理會 開催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폐회’, 『조선일보』 1926년 12월 9일자; ‘馬山教會 紛糾 內容陳述書 公布’, 『중외일보』 1926년 12월 9일자; ‘共同處理會 開催하고 責任者 處罰을 討議’, 『동아일보』 1926년 12월 10일자.

24) ‘馬山教會의 紛糾’, 『조선일보』 1926년 12월 25일자.

25) (조선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제22회 회록」 3-4: 7.

26) 위의 자료, 32-33.

노회 석상에서 마산교회의 손덕우, 김영규 장로는 “지난번 임시노회 시에 노회가 일보지 못하고 산회케 된 것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자복(自服)”하였고, 맹호은 선교사는 “자기가 공동처리회 회장으로 공동처리회의 모든 일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자인(自認)”한다고 자복하였다.²⁷⁾ 경남노회는 마산교회에서 당회와 공동처리회 등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진상조사와 처리결과 등을 무시하고, 박승명의 음행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산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물어 박승명의 권고사면을 결정한 것이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승명은 “일부에서 모함하는 사실의 내면이 너무나 추악하며 창피함”을 참을 수 없으므로, “거번(去番) 노회 때에 전반 교인들의 눈물을 흘려 만류함도 뿌리치고 단연히 사임”한 후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갔다.²⁸⁾

2. 마산교회 교인들과 맹호은 선교사의 대립(1927년 1월~1927년 8월)

경남노회가 폐회된 이후 마산교회의 분규는 다수의 교인들과 맹호은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다수의 교인들은 맹호은의 태도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공동처리회 회장으로서 사회를 맡고 결의된 사항이 노회에서 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처리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산교회로 돌아와 교인들의 문제 제기를 철저히 외면하며 더 이상 공동처리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임시교인회를 개최하고 “마산지방의 선교사 맹호은(서양인)씨는 처사가 우협(偶狹)하고 매사에 강압적 태도가 심함으로 씨의 지휘를 일체 맞지 않기로”하고, 박승명에 대해서는 “본 교회에서 세밀히 조사한 결과 무죄 명백함을 확신하고 씨의 유임을 경남노회에 청원할

27) 위의 자료, 33-34.

28) ‘內糾에서 警察까지 修羅場된 馬山教會’, 『조선일보』 1927년 4월 25일자.

것” 등을 결의하였다.²⁹⁾ 예배시간에 다수의 교인들과 맹호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이를 말리기 위해 정복 순사가 출동하여 교인들을 해산시켰다.³⁰⁾ 마산교회의 격렬한 싸움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마산교회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것은, 맹호은이 사회를 맡았던 공동처리회의 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교인들은 임시교인회를 열어, 맹호은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예배 인도를 허락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그의 예배 인도를 거부했다.³¹⁾ 교인들의 반발에 밀린 맹호은이 예배 사회를 중지함에 따라 마산교회 분규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맹호은이 “어느 교인을 대하여 조선인은 야만인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감행한 사실”을 접한 마산 기자단에서는 진상을 조사한 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기로 결의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飛火)되기 시작했다.³²⁾

경남노회는 맹호은과 다수 교인들 사이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27년 3월 24일 부산진예배당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하였다. 임시노회에서는 마산교회의 당회, 제직, 성례 등의 행사를 모두 정지시키고, 전권위원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³³⁾ 매견시 등 6명의 전권위원들은 3월 26일 마산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교인들과 대립·충돌하여

29) ‘獨立自治를 決議 西洋宣教師 排斥’,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자; ‘宣教師는 留任하고 教會는 自治制로 臨時교인회에서 결정해 紛糾擴大되는 馬山教會’, 『조선일보』 1927년 1월 13일자.

30) ‘敎人들과 牧師들이 教堂에서 格鬪, 원인은 교인의 요구거절’, 『동아일보』 1927년 2월 10일자; ‘紛糾中の 馬山教會 禮拜中에 또 流血’, 『동아일보』 1927년 2월 13일자.

31) ‘紛糾中の 馬山教會 禮拜中에 또 流血’, 『동아일보』 1927년 2월 13일자; ‘雙方妥協 破裂’, 『동아일보』 1927년 2월 17일자; ‘地方短評 〇馬山’, 『동아일보』 1927년 2월 14일자.

32) ‘宣教師의 非行調査 決議’, 『동아일보』 1927년 2월 10일자.

33) 노회록에는 별위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위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위원장 매견시 명의의 보고서만 포함되어 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임시노회록』 38-39.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결국 4월 2일 마산을 떠났다. 마산교회 대립의 원인에 대해 다수 교인들은 박승명의 사임과는 별개로 맹호은 자신이 사회를 보았던 공동체회의의 결의를 지키지 않아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전권위원들은 박승명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들 사이에 대화와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언론은 다수 교인들과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1월 경남노회 이후 “마산교회 당회장 맹호은 씨의 과실로써 교인이 불열(不悅)함으로 발생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노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도하였다.³⁴⁾ 매견시와 맹호은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다수 교인들과 전권위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안란에(A.W. Allen)가 교인들을 고발하였으나 검사국의 조사 결과 불기소 처리되었다.³⁵⁾ 언론은 “경찰이나 검사국에 아첨하여 불의의 해결을 지으려다가 지재지삼의 거절을 당코도 신성한 선교사의 지위를 지키랴”하는 선교사들에게 “마산 시민은 타매(唾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³⁶⁾

전권위원들이 마산을 떠난 이후 맹호은과 이상소파 교인들은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의신유치원에서 따로 예배를 보게 되었다.³⁷⁾ 마산교회 분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 사회 전반에 알려지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마산교회에서 목회하였고, 당시 신의주교회에서 시무 중이던 한석진 목사가 6월 하순경 마산에 도착하여 사태의 중재에 나섰다. 한석진은 손덕우, 이상소를 만나 타협을 설득했으며, 교인

34) ‘臨時老會 決議로 諸般 行事禁止’, 『동아일보』 1927년 4월 1일자.

35) ‘三人責罰 問題 敎人 全部가 一致反對’, 『동아일보』 1927년 4월 7일자; ‘內科에서 警察까지 修羅場된 馬山敎會’, 『조선일보』 1927년 4월 25일자; ‘排斥中の 宣敎師流 또다시 警察에 阿諛’, 『조선일보』 1927년 6월 15일자.

36) ‘排斥中の 宣敎師流 또다시 警察에 阿諛’, 『조선일보』 1927년 6월 15일자; ‘英宣敎師가 警察에 援助要請’, 『동아일보』 1927년 6월 14일자.

37) ‘敎會兩派遂分立’, 『동아일보』 1927년 5월 7일자.

다수파는 그의 중재를 받아들였다.³⁸⁾ 1927년 7월 5일 동래읍 수안예배당에서 개최된 경남노회에서 손덕우 장로와 박채우, 김은수 등이 전권위원들에게 사과하였으며,³⁹⁾ 박채우, 김은수는 별도로 노회에 사과장을 제출했다.⁴⁰⁾ 노회에서는 매견시 등 5명을 전권위원으로 선정하여 마산교회에 파견하였다.⁴¹⁾ 박승명은 자신의 사임을 철회하고 경남노회에 이명(移名)을 요청하였으나, 노회에서는 박승명을 위증, 노회 모욕과 반항, 강간미수의 죄명으로 기소하기로 결의하고 조선예수교회 헌법에 의하여 재판국을 설치하였다.⁴²⁾ 노회에서 파견한 전권위원들의 조정을 받아들여 마산교회는 양파가 합동하여 다시 예배를 보게 되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돈 많고 세력이 좋은 이씨 일파에서는 일반이 요구하는 사과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의기양양한 우월적 태도로 교인을 대한다”고 분개한 교인들이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⁴³⁾

3. 경남노회 재판국의 판결과 자치파의 분열(1927년 8월~1927년 10월)

경남노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된 이후 박승명에 대한 재판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관련 재판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

38) ‘社說, 馬山教會의 平和를 듯고’, 『기독교신보』 1927년 7월 30일자.

39) (조선예수교 장로회)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제23회 회록」 78-79.

40) 위의 자료, 81-82.

41) 위의 자료, 80.

42) 위의 자료, 68-69.

43) ‘말성만튼 馬山教會 또다시 分裂? 多數派中 百餘名 結束으로 自治教會를 別設’, 『동아일보』 1927년 8월 17일자; ‘專權에 反抗 禮拜時에 紛爭 全權위원불법에 分개해야 례배 시에 풍파가 쏘이러나 馬山教會 紛糾再燃’, 『동아일보』 1927년 9월 6일자; ‘妥協한 後 또다시 軋轢’, 『조선일보』 1927년 8월 16일자; ‘紛糾하든 馬山教會 結局은 分離自治’, 『조선일보』 1927년 9월 6일자.

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확인되는 것은 『기독신보』에 수록되어 있는 판결문 뿐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박승명에 대한 경남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1927년 8월 5일에 있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기소한 바를 심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함으로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박승명에 대하여 “목사 면직(免職)과 수찬정지(受餐停止)의 벌”을 선고하였다.⁴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마산교회 교인들은 경남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다. “고압적이며 무리한 노회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수의 교인들 가운데 최원칙, 이기환, 최종한 등 백 수십여 명에 이르는 남녀 교인들이 결속(結束)하여, 선교사의 간섭과 장로회의 처리를 받지 않는 자치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8월 14일 주일 저녁, 별도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치파의 1차 분열이 이루어졌다.⁴⁵⁾ 마산교회를 치리(治理)하고 있던 전권위원들은 박승명에 대한 재판국 판결 이후 이상소, 이순필 장로를 복직시키고 당회를 개최하였다. 당회는 기존에 행사 중지 조치를 받았던 집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새로운 인원을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윤덕이와 이옥동에 대한 책벌을 취소하고, 교회가 운영하던 사립창신학교를 후원하던 교육회를 해산하였다. 전권위원들과 당회의 무리한 처사에 반발한 교인들은 긴급 교인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하였다. 교인들은 김은수, 이기정, 박덕우, 홍두영, 최종안 등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9월 원산에서 개최될 조선예수교 총회에 대표 2인을 파견하여 전권위원의 “횡포하고 불공평한 처치에 대하여 총회에 고소”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⁶⁾ 마산교회에서는 다수의 교인들과 당회 및 전권위

44) ‘慶南老會 第二十三回 撮要’, 『기독신보』 1927년 8월 31일자.

45) ‘말성만튼 馬山教會 또다시 分裂? 多數派中 百餘名 結束으로 自治教會를 別設’, 『동아일보』 1927년 8월 17일자; ‘分離된 敎人 多數派 教會獨立을 宣言’,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자.

46) ‘專權에 反抗 禮拜時에 紛爭 全權위원불법에 分개하여 례배시에 풍파가 쏘이러나 馬山教會 紛糾再燃’, 『동아일보』 1927년 9월 6일자; ‘紛糾하는 馬山教會 結局은 分離自治’,

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으로 예배당은 싸움판이 되어 주일예배와 삼일기도회를 원만하게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⁴⁷⁾ 싸움의 원인을 언론은 “남아있는 교인 다수파가 마자 나갔으면 교회 모든 권리는 자기들 수중에 들어와 마산교회를 자기네 자의대로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상소 일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했다.⁴⁸⁾

마산교회의 분규가 재연되어 격화되는 중에 1927년 9월 9일 원산에서 제16회 장로교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22회 경남노회 시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책사면(引責辭免)을 권고함으로 처리한 안건을 23회 노회에서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에 부(附)함”은 합법한 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경남노회에 본건의 경사수정(更事修正)을 명령하고 마산교회를 총회의 직할로 하되 모든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경남노회와 마산교회에 특별위원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⁹⁾ 따로 예배를 드리던 자치파 교인들 또한 다시 마산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렸으며,⁵⁰⁾ 총회의 결의를 접한 언론은 “비로소 원만한 판결을 받았음으로 일로부터는 분규중첩하든 마산교회도 평화의 서광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⁵¹⁾ 10월 4일 부산에 도착한 함태영 등 총회 특별위원 5명은 부산진예배당에서 열린 경남임시노회에 참석하여 일반의 방청을 금지한 가운데 노회원들과 협의를

『조선일보』 1927년 9월 6일자.

47) ‘禮拜堂이 修羅場化 兩派信徒 神前에 相爭’, 『동아일보』 1927년 9월 7일자; ‘紛糾는 또 繼續 선교사의 璽포가 그 원인 馬山基督敎會의 近況’, 『동아일보』 1927년 9월 15일자; ‘亂鬪로 禮拜 각파의 압력이 또 개시되어 레배 불제마다 亂투를 시작 醜態續出하는 馬山敎會’, 『동아일보』 1927년 9월 17일자; ‘馬山敎會 紛糾解決’, 『조선일보』 1927년 9월 23일자.

48) ‘亂鬪로 禮拜 각파의 압력이 또 개시되어 레배 불제마다 亂투를 시작 醜態續出하는 馬山敎會’, 『동아일보』 1927년 9월 17일자.

49) ‘馬山敎會 紛糾解決’, 『조선일보』 1927년 9월 23일자.

50) ‘分離된 敎人 多數派 敎會獨立을 宣言 만세부르고 비라를 산포’,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자.

51) ‘馬山敎會 紛糾解決’, 『조선일보』 1927년 9월 23일자.

시작하였다.⁵²⁾ 7일 저녁까지 계속된 임시노회에서 총회 특별위원들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노회의 처리는 합법이며 총회의 결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경남노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⁵³⁾ 총회 특별위원들은 마산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교인들에게 경남노회와 협동하여 처리한 내용을 공포하였으며, 크게 실망한 교인 다수파는 교인회를 개최하고 대표를 보내 총회 특별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총회 특별위원들의 답변이 “요령부득하고 애매함”으로 교인들은 다시 교인회를 열고 대책을 토의하였다. 언론은 총회 특별위원들의 조치가 “교회 헌법에 의해야 이것이 최고 판결임으로 양파의 타협은 가망이 없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⁵⁴⁾ 결국 1927년 10월 16일 주일예배 이후 자치파가 최종적으로 분열하였다.⁵⁵⁾ 자치파 교인들은 노회와 총회 등 교회의 공식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교회 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총회 특별위원들의 조치는 총회의 결의를 부정(否定)하고 경남노회원들과 협잡(挾雜)한 결과였으므로, 교회 제도 내에서의 원만한 해결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분리해 나간 자치파 교인들은 장로파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예배당의 소유를 두고 마산교회와 대립하지 않고 마산야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교인들이 모두 “물질 방면에 자유가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⁵⁶⁾

52) ‘最高判決에 多數派가 不服 위원을 선명하여 리유질문 馬山教會 紛糾妥協 絶望’, 『동아일보』 1927년 10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특별위원들은 “부산에서 경남노회를 극비 밀리에 열고 무엇인지 협의한 후”에 마산에 도착하였다.

53) (조선예수교 장로회)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임시회록」 87; 89-90;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회록』 121.

54) ‘最高判決에 多數派가 不服 위원을 선명하여 리유질문 馬山教會 紛糾妥協 絶望’, 『동아일보』 1927년 10월 16일자.

55) ‘分離된 敎人 多數派 敎會獨立을 宣言 만세부르고 비라를 산포’,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자.

56) ‘裡面醜惡을 嫌惡 分離自治宣言 따로 회관건축에 노력중’, 『조선일보』 1927년 11월 6일자.

III. 독립마산예수교회 설립과 활동

1. 지역사회로의 분규 확산과 독립파의 독립선언

(1927년 11월~1928년 1월)

자치파 교인들이 분리하여 나간 이후 마산교회는 맹호은, 이상소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당회파와, 중립적 입장에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손덕우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교인들로 나뉘어졌다. 다수의 교인들은 경남노회 및 총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자치파 교인들과는 달리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1927년 11월, 마산교회가 운영하는 사립창신학교의 교장 맹호은은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일래, 이기정, 김영진 등 3명의 교원을 해직하였다. 언론은 이들 교원이 마산교회 분규 과정에서 맹호은 반대파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해직된 것으로 보도하였다.⁵⁷⁾ 교원의 해직 조치에 반발한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돌입하였으며, 학부형회의 강력한 항의와 일반 사회의 여론에 밀린 맹호은의 양보로 교원 해직은 일단 취소되었다.⁵⁸⁾ 마산교회의 분규가 사립창신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로 확산되자, 교회의 분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손덕우는 마산교회 장로직과 학교 설립자 직위를 사임하였다.⁵⁹⁾

1927년 11월 27일 오전 마산교회 문창예배당에서 손덕우는 “불공평하고 강압적이며 부패한 총회나 노회나 당회의 지배 아래 있는 장로교회”를 떠나 마산예수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독립파 교인들은 자치를 선언

57) ‘馬山昌信校 動搖’, 『조선일보』 1927년 11월 11일자.

58) ‘三敎員 復職을 堂會에 要求해’, 『동아일보』 1927년 11월 14일자; ‘三敎員 淘汰로 學父兄會도 憤慨’, 『조선일보』 1927년 11월 15일자; ‘悲運에 빠진 馬山昌信校’, 『동아일보』 1927년 11월 18일자.

59) ‘設立者 孫氏 사임원을 提출’, 『동아일보』 1927년 11월 18일자.

하고 나간 자치파 교인들과 함께 “마산예수교 독립 만세”를 삼창(三唱)하고 독립선언서를 산포(散布)하였다. 독립파 및 자치파 교인들과 장로파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장내가 험악해지자 마산경찰서 고등계 형사들과 정·사복순사 5~6명이 예배당에 입장하여 소란을 진정시켰다. 경찰은 현장에서 충돌한 손덕우 등 독립파 교인들과 맹호은, 이순필 등 장로파 교인들을 원정파출소로 소환하여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당일 저녁 예배는 장로파가 19시부터 20시까지, 독립파가 그 이후에 드리는 것으로 일단 합의되었다.⁶⁰⁾ 자치파 교인들이 독립파와의 합동을 선언한 이후, 약 400여 명의 교인들이 손덕우의 사회와 김산의 강도(講道)로 저녁 예배를 함께 드렸다. 독립파 교인들은 28일 오후 7시부터 문창예배당에서 교인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문창예배당에서의 교인대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손덕우의 자택 마당에서 교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인대회에서는 임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 조직 및 헌법 제정을 임시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⁶¹⁾ 문창예배당에서 독립파 교인들의 회집(會集) 금지는 당회파의 맹호은, 이순필, 서병지 등이 마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결과였다. 특히 “몇 번이나 경찰서와 검사국을 역방(逆訪)하며 또는 경남 경찰부에 아유구용(阿諛苟容)을 하든 서양인” 매견시가 경남 경찰부장과 동행하여 마산을 방문하였으며, 경찰부장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⁶²⁾ 독립파 교인들은 문창예배당이 “교인의 공유물인 동시에 누구든지 그곳에 모혀 예수의 일홈으로

60) ‘禮拜보다가 亂鬪 畢竟 警察이 鎮壓 馬山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자 대풍파’, 『동아일보』 1927년 11월 29일자; ‘馬山耶蘇教會 年餘를 自相踐踏’, 『조선일보』 1927년 11월 29일자.

61) ‘自治,獨立 兩派가 合同 獨立派教人大會를 警察이 突然解散’, 『동아일보』 1927년 12월 1일자; ‘死를 覺悟’, 『조선일보』 1927년 12월 1일자.

62) ‘馬山教人大會를 警察이 無理禁止’, 『조선일보』 1927년 12월 1일자; ‘自治,獨立 兩派가 合同 獨立派教人大會를 警察이 突然解散’, 『동아일보』 1927년 12월 1일자.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임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경찰의 과도한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⁶³⁾ 독립파 교인들은 문창예배당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의 비호를 받는 장로파와 대립하고 있던 중, 1928년 1월 교인대회를 개최하여 독립교회의 강령 및 조직을 정리·공표(公表)하였으며, 위원 중의 한 명인 김산이 교역자로 활동했다.⁶⁴⁾

마산예수교 강령(綱領)

- 일. 우리의 유일한 신조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는 구주시오 세계인류는 형제라 한 3조 1관(貫)의 신경(信經)외에 또다시 업나니라.
- 이. 우리는 개인의 자유 신앙을 절대 공인하는 동시에 자유 신앙에 방해되는 편협된 고정적 신경조례(信經條例)를 부인함
- 삼. 우리는 예수교회의 연합통일을 주장하는 동시에 연합통일에 장애되는 각 교파의 번폐(煩弊)한 교정조례(教政條例)와 교황, 주교, 감독, 장로 등의 과두정치(寡頭政治)를 부인함.
- 사. 우리는 예수의 근본주의인 민중 본위(民衆 本位)의 교회를 수립하는 동시에 일체의 조직과 교권(教權)의 평신도화(平信徒化)를 주장함.
- 부서 - 성례부(聖禮部), 서무부, 조직부, 재무부, 상조부(相助部).
- 위원 - 손덕우, 김산, 박덕우, 이기한, 이기정, 최종완, 김은수, 김주봉, 이일래 외 11人.⁶⁵⁾

63) ‘殊常한 馬山警察 自治派를 檢束 자치파의 레배당 사용을 마산경찰서가 금지한다 馬山教會紛爭續報’, 『동아일보』 1927년 12월 3일자; ‘委員六人 釋放 실유하고 노야’, 『동아일보』 1927년 12월 4일자.

64) 김산은 1898년생으로 중국 금릉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3·1운동에 참가하여 1년 복역하였으며, 무정부주의자 성향이 강하였다. 해방 후에 한국민주당에 참여하여 민주당 구과의 중견 인물로 활약하였으며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민의원 의원선거 서울 서대문을구 선거구에서 민의원으로 당선되었다.

65) ‘馬山예수教 綱領을 作定’, 『동아일보』 1928년 1월 18일자; ‘面目一新한 馬山獨立教會 民衆本位の 綱領을 發表’, 『조선일보』 1928년 1월 18일자.

마산교회의 분규는 사립창신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의신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립의신학교 교장과 모 교원이 학생들에게 자치파나 독립파에 가담하여 예배를 보는 학생은 장로교회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므로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학생들은 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생에게는 배울 수 없다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며,⁶⁶⁾ 학부형들은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문제를 일으킨 교원의 사임을 요구하였다.⁶⁷⁾ 사립창신학교의 문제도 계속되었다. 1928년 2월 맹호은 교장은 교원 6명 전원에게 사면권고서(辭免勸告書)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교회 교원 3명이 사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⁶⁸⁾ 마산교회의 분규가 지역의 교육에까지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되자,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산청년동맹에서는 마산교회의 분규가 “마산 사회상의 중대 문제인 만큼 일반 인사에게 더욱 교인으로서 좌선우악(左善右惡)을 가리여 일반에게 그 분규의 죄상을 고찰”하고자, 마산교회 분규 연설회를 신간회 마산지회, 마산노동연맹과 함께 마산 수좌(壽座)에서 12월 18일 오후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⁶⁹⁾

2. 마산 지역 민족운동에의 참여와 예배당 건립(1928년 1월~1928년 11월)

1928년 1월 교인대회를 개최하여 강령을 선포하고 조직을 정비한 독립교회는 “예수의 근본주의인 민중 본위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회 내

66) ‘殊常한 馬山警察 自治派를 檢束 자치파의 레배당 사용을 마산경찰서가 금지한다 馬山教會紛爭續報’, 『동아일보』 1927년 12월 3일자.

67) ‘馬山敎員自治와 義信女校盟休’, 『조선일보』 1927년 12월 4일자; ‘馬山義信女校 盟休尙今繼續’, 『조선일보』 1927년 12월 15일자.

68) ‘各地瑣信 ◇昌信敎員辭免警告’, 『조선일보』 1928년 3월 6일자.

69) ‘教會檢討演說 靑年同盟主催로’, 『동아일보』 1927년 12월 11일자; ‘馬山教會問題 檢討演說會’, 『조선일보』 1927년 12월 11일자; ‘馬山셔도 禁止’, 『조선일보』 1927년 12월 15일자.

‘기독교 신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기독교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청년단체 조직에 집중하였다. 독립교회의 청년 교인들은 1월 29일 오후 7시, 문창예배당에서 십자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위원장 이기정, 서무부 이조한, 재정부 김은수, 종교부 김산, 음악부 이일래, 문예부 김주봉, 사교부 최동락, 체육부 김복록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마창사회단체협회에 가맹하기로 결의하였다.⁷⁰⁾ 마창사회단체협회는 마산청년동맹과 신간회 마산지회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1928년 1월 3일 마산·창원 지역의 15개 단체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인접해 있는 마산과 창원이 “운동 선상(線上)에 잇서 연락이 업슴은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격별(格別)한 연락을 취할 것”과, “각지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에 전(全)사회단체로서의 집회와 운동에 대한 기능(技能)의 민활(敏活)을 도(圖)키 위하여 상설기관”으로 마창사회단체협회를 구성하고 이 조직을 “마산창원에 망라한 각 단체를 소집하며 여론을 환기할 만한 대표기관으로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준비위원들은 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1월 29일까지 각 단체의 가입신청을 받은 후, 1월 31일 오후 창원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절대로 민족단일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와 지방적 색채를 띤 정신하에서 할 것”을 전제로 규약 및 강령의 편제(編制)는 이경재, 최철용, 여해 등 3인에게 일임하였다.⁷¹⁾ 1928년 1월 31일 오후

70) ‘馬山獨立教會 十字青年會 組織’, 『조선일보』 1928년 2월 1일자.

71) ‘馬山昌原聯合으로 社會團體協會 組織’, 『조선일보』 1928년 1월 7일자. 참가한 15개 단체는 창원청년회, 창원동화합성회, 마산노동연맹, 마산해륙운수노동조합, 마산청년동맹, 신간회 마산지회, 마산노동회, 마산수물직공동맹, 북마산역운수노동조합, 창원여성동맹, 진해농민동맹, 진해청년회, 신간회 창원지회, 구마산역운수노동조합, 면려청년회 등이었다. 면려청년회는 1928년 개최된 장로교청년수양회를 분기점으로 사회운동에 주력하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던 장로교의 청년운동단체로, 마산 지역의 면려청년회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창원청년회관에서 마창사회단체협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단체에서 파견된 대의원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는 마창해방운동전선(馬昌解放運動戰線)의 긴밀한 유기적(有機的) 연결을 도(圖)함”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⁷²⁾ 십자청년회는 2월 11일 저녁 손덕우의 자택에서 마산 지역 유지(有志)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⁷³⁾ 회원들은 십자청년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산 영화정 일대에서 식료품 행상을 시작하였다.⁷⁴⁾ 이러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분투는 당시 마산의 유식자 계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⁷⁵⁾

독립교회는 “교지(教旨)를 관철코저 많은 사업을 해오든바 특히 일소 부분이나마 우리의 경제를 돕기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1928년 5월 10일 저녁 문창예배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은수, 백남두, 이창우, 박덕우, 최종안을 이사로, 이기환과 김주봉을 감사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⁷⁶⁾ 1928년 9월 관북(關北) 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마산 지역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관북수재마산구제회(關北水災馬山救濟會)가 조직되어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교회 역시 구제회에 참여하여 구제금을 기탁하였으며, 부인 교인들은 “관북수재의 참상을 듣고 인류애와 동족애에서 넘치는 뜨거운 동정심”으로 의복 50벌을 손수 제작하여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전달하였다.⁷⁷⁾ 독립교회는 교인 자녀는 물론 일반

72) ‘馬昌社會團體協會’,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자.

73) ‘馬山有志 懇談’, 『동아일보』 1928년 2월 13일자.

74) ‘地方雜信’, 『동아일보』 1929년 4월 17일자; 김형운, 『마산야화: 김형운 유고집』 (서울: 태화출판사, 1973), 216.

75) ‘十字青年行商’, 『동아일보』 1930년 4월 13일자.

76) ‘協同組合 創立’,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자.

77) ‘慘澹한 旱, 水災와 各地 同胞의 뜨거운 同情’, 『동아일보』 1928년 9월 23일자; ‘救濟金

무산자(無産者) 가정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29년 4월 5일, 예배당 뒤 대지 54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중앙보육학교를 졸업한 김현경을 주임 보모(保姆)로 임명하고, 원아 40여 명을 모집하여 우리유치원을 설립하였다.⁷⁸⁾

이외에도 독립교회는 교인을 대상으로 한 부흥사경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개 강연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다. 1928년 2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황치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문창예배당에서 부흥강연회를 열었으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강연회는 “미신적 교리를 떠나 참된 신앙의 새로운 기초를 확립시키겠다는 방침임으로 평소의 신자가 아닌 무종교인의 출석이 빈다(頻多)하여 매야(每夜) 성황을 일으키는 중”이었다.⁷⁹⁾ 1928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십자청년회의 후원으로 김창제를 강사로 초청하여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은 「청년과 불평」, 「청년과 유혹(誘惑)」, 「해방의 진의(眞義)」, 「시대변천과 조선」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청중이 참석하여 강연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⁸⁰⁾ 예배당을 신축한 이후 1929년 2월 김산, 한좌건, 김근석 등 3명을 강사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신춘대강연회를 개최하였고⁸¹⁾ 1930년 2월에는 『성서조선』의 정상훈 주필을 초청하여 2일부터 1주일 동안 성서강좌와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⁸²⁾

문창예배당을 둘러싼 독립교회와 마산교회 간의 대립은 마산경찰서의 중재에 의해 양측이 예배 시간을 분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조정

遷至, 『동아일보』 1928년 9월 28일자.

78) ‘幼稚園 設置’, 『동아일보』 1929년 4월 18일자.

79) ‘馬山獨立教會 復興講演會 每夜 大盛況’, 『조선일보』 1928년 2월 11일자.

80) ‘嶺南地方 ●馬山 예수教會 講演’, 『동아일보』 1928년 4월 6일자.

81) ‘新春大講演會 獨立馬山教會에’, 『조선일보』 1929년 2월 22일자; ‘馬山新春講演’, 『동아일보』 1929년 2월 22일자.

82) ‘馬山獨立教會 聖書講座 開催’, 『조선일보』 1930년 2월 6일자.

되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규가 종식된 듯 보이며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나,⁸³⁾ 마산교회 측이 독립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되었다.⁸⁴⁾ 양측의 갈등은 독립교회가 문창예배당의 사용을 포기하고 자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언론은 마산교회 측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⁸⁵⁾

독립교회 교인들은 1928년 2월 12일 밤 교인대회를 개최하여, 문창예배당의 소유권을 둘러싼 마산교회와의 지속적인 분쟁은 기독교의 참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교인 수에 있어 독립교회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창예배당 건물의 사용을 포기하고 독립교회의 장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결의하였다.⁸⁶⁾ 특히 새로 건립된 예배당은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지는 성전(聖殿)’으로서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마산 지역의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전 조선적으로 교회 혁신을 목표로 한 우리로써 일(一) 지방 예배당 문제로 구구히 투쟁을 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독립교회 교인들은, 교인대회 현장에서 교회당 신축을 위한 연보금(捐補金) 1,600원을 자발적으로 현금하였다. 언론은 “독립파는 무산자 교회인 만큼 현금 외 지환, 비녀 등 폐물류의 연부(捐付)가 많다 하며, 전 교인의 열성을 보아 예배당 실현이 불원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⁸⁷⁾

83) ‘馬山 兩教會 空氣又險 일반은 주목’, 『조선일보』 1928년 2월 14일자; ‘馬山 兩教派의 葛藤 再燃’, 『조선일보』 1928년 3월 5일자.

84) ‘各地瑣信 ◇查經會 妨害’, 『조선일보』 1928년 2월 15일자; ‘馬山 兩教會 空氣又險 일반은 주목’, 『조선일보』 1928년 2월 14일자; ‘馬山 兩教派의 葛藤 再燃’, 『조선일보』 1928년 3월 5일자; ‘各地瑣信 ◇禮拜時間 變更撤回’, 『조선일보』 1928년 3월 9일자.

85) ‘馬山短評’, 『조선일보』 1928년 9월 29일자.

86) ‘馬山獨立教會 教人大會 開催 禮拜堂 新築을 決議後 卽席 千六百餘圓 捐補’, 『조선일보』 1928년 2월 18일자.

87) ‘新敎綱宣佈 教會堂도 新築 馬山新教會 活動’, 『동아일보』 1928년 2월 19일자; ‘馬山

마산 지역은 시민운동을 위한 집회 공간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거 마산기근구제회가 기근 구제를 위한 음악연예회 개최를 목적으로 문창예배당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마산교회 측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⁸⁸⁾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당은 예배당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회당 비슷하게 일반 공중 집회에도 사용”하겠다는 독립교회의 방침은 지역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소식을 들은 창원의 지주 김철현은 “자기 소유인 마산부 석정(전 마산정미소 기적(基蹟)) 100평을 교회당 신축부지로 보통 시가 보담도 염가(廉價)로 매도”하기로 하고, 건축 기금으로 500원을 기부하였다.⁸⁹⁾ 창원읍에서 마산으로 이주한 비기독교인 김영규는 “사백여명 남녀 평신도가 성서강당을 신축하노라고 합심 노작하는 것을 목도”하고 감격하여 건축 기금으로 100원을 기부하였으며,⁹⁰⁾ 이순길은 망부인(亡婦人) 고(故) 김소악의 명의로 풍금(시가 200원) 1대를 기증하였다.⁹¹⁾ 부족한 교회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독립교회 교인들은 동아일보 및 『중외일보』 마산지국의 후원을 받아 1928년 8월 17일 문창예배당에서 음악가극무용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약 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신간회 마산지회를 비롯하여 마산청년동맹, 황갑주 등 지역의 여러 인사와 단체가 건축 기금을 후원하였다.⁹²⁾

독립교회 교인들은 1928년 여름부터 마산부 신정에 위치한 전 마산정

獨立教會 教人大會 開催 禮拜堂 新築을 決議後 卽席 千六百餘圓 捐補, 『조선일보』 1928년 2월 18일자.

88) ‘不平’, 『동아일보』 1924년 11월 21일자.

89) ‘五百圓을 寄附’, 『동아일보』 1928년 4월 29일자.

90) ‘金百圓 寄贈’, 『중외일보』 1928년 11월 24일자; ‘教會에 百圓 寄贈’, 『동아일보』 1928년 11월 26일자.

91) ‘風琴 一臺 寄贈’, 『동아일보』 1928년 10월 4일자.

92) ‘音樂歌劇大會 馬山에수教會 主催로 十七日에 開催’, 『동아일보』 1928년 8월 15일자; ‘馬山音樂歌劇 盛況裡에 終幕’, 『동아일보』 1928년 8월 20일자.

미소 기적(基跡) 부지에 건평 70평의 예배당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교인들은 “염천(炎天)을 불구하고 자수(自手)로 토목공사에 진력”하여, 9월 30일부터 신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⁹³⁾ 독립교회는 장로교에서 분리하여 독립을 선언한 지 만 1주년이 되는 1928년 11월 27일 신축 교회당 낙성식(落成式) 및 1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김산의 사회로 진행된 교회당 낙성식 및 1주년 기념식에서는 마산 지역 민족운동 지도자 이형재, 여해, 명도석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저녁에는 십자청년회 주최로 축하 연예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다.⁹⁴⁾

3. 신축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마산 지역 민족운동(1928년 10월~)

독립마산교회 신축 예배당에서는 마산 지역 민족운동 단체의 활동 및 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29년 1월 13일 마산부윤(馬山府尹) 이 마산부 소유의 원(元) 철도용지인 중앙경작지를 일본인 학교조합에 특혜를 부여하여 임대 및 매도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마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문제 삼고 ‘마산부 조선인 부민 유지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부소유의 토지를 일반 부민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일부 학교조합의 이익”을 위해 부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마산부민대회를 1929년 1월 16일 오후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⁹⁵⁾ 마산경찰서가 부민대회의 개최를 금지하자, 실행위원회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1929년 2월 1일 오후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마산부윤 규탄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⁹⁶⁾ 그러나 일제 경찰은 동 연설회가 일

93) ‘馬山獨立教會 新教會堂을 洛城’, 『동아일보』 1928년 10월 2일자.

94) ‘馬山耶蘇教會 獨立一週紀念 夜間엔 演藝會’, 『조선일보』 1928년 11월 30일자.

95) ‘府土地處分= 問題益擴大’, 『동아일보』 1929년 1월 16일자; ‘鐵道拂下地 問題로 馬山府民大會’, 『조선일보』 1929년 1월 17일자.

선융화(日鮮融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마저도 금지하였다.⁹⁷⁾

독립교회 예배당은 신간회 마산지회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인들 또한 신간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와 지역 민족운동 간의 긴밀한 연대를 보여주었다. 1928년 10월 13일 밤 신간회 마산지회 임시대회가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교인 김주봉이 간사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⁹⁸⁾ 임시대회는 마산경찰서가 어대전(御大典)을 구실(口實)로 토의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간부 보선(補選)만을 진행한 후 곧바로 폐회되었다.⁹⁹⁾ 신간회 마산지회는 1929년 1월 28일 밤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제2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명도석이 회장으로, 여해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독립교회 교인인 이기환이 간사 중의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임원 개선 및 예산안 보고가 진행되었으나, 일제 경찰이 전국대회에 제출할 건의안에 대한 토의를 금지함에 따라 정기대회는 중지되었다.¹⁰⁰⁾ 1929년 12월 27일 신간회 마산지회 제3회 정기대회가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으며,¹⁰¹⁾ 신간회 마산지회 문화정치부가 주관한 학술강연회 또한 독립교회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학술강연회는 1929년 2월 2일에 철학박사 백성욱이 「현대가 요구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조선시단(朝鮮詩壇)』 주간 황석우가 「우리의 예술운동」이

96) '板垣府尹의 糾彈演說會', 『동아일보』 1929년 1월 31일자; '馬山府 有志會 實行委員會', 『조선일보』 1929년 1월 31일자.

97) '融和上 障害라고 또 集會를 禁止', 『동아일보』 1929년 2월 3일자; '坂垣 馬山府尹 糾彈演說會 禁止', 『조선일보』 1929년 2월 3일자.

98) '新幹馬山臨大', 『동아일보』 1928년 10월 16일자.

99) '新幹馬山支會 臨時大會 禁止', 『조선일보』 1928년 10월 16일자.

100) '영남지방 ●마산 신간회 간사회', 『동아일보』 1929년 1월 17일자; '馬山新支大會', 『동아일보』 1929년 1월 26일자; '馬山新支定總 建議案은 禁止', 『동아일보』 1929년 2월 2일자; '新幹馬山支會 二回定期大會', 『조선일보』 1929년 1월 31일자.

101) '馬山新幹大會 廿七日에 開催', 『동아일보』 1929년 12월 16일자; '馬山新幹支會 대회 소집', 『조선일보』 1929년 12월 17일자.

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 도중 황석우는 불온한 언사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¹⁰²⁾

독립교회 교회당에서는 근우회 마산지회의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되었다. 당시 마산 지역은 “여성운동 단체가 없음으로 운동의 통일상 직접 간접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누구나 물론하고 오랫동안 유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29년 2월 20일 근우회 마산지회의 발기 인회가 개최되었으며, 3월 13일 독립교회 교회당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¹⁰³⁾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3월 13일 오후에 개최된 근우회 마산지회 설립대회에는 회원 50여 명과 방청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근우회 경성본부 상무위원 박호신의 취지 설명이 있은 이후 신간회 마산지회의 여해, 십자청년회의 김근석, 내빈(來賓) 한좌건 등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근우회 마산지회의 제1회 위원회가 개최되었다.¹⁰⁴⁾ 근우회 마산지회는 1929년 5월 17일 밤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김태석을 초청하여 염색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근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부인들도 다수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¹⁰⁵⁾ 근우회 마산지회는 1930년 4월 12일 오후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제2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독립교회의 김산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였다.¹⁰⁶⁾

102) ‘學術講演會’, 『동아일보』 1929년 2월 3일자; ‘新幹馬山支會’, 『조선일보』 1929년 2월 3일자; ‘馬山新幹主催 學術講演會’, 『조선일보』 1929년 2월 6일자.

103) ‘權友馬山支會’, 『조선일보』 1929년 2월 25일자; ‘權友支會 設立準備’, 『동아일보』 1929년 2월 26일자.

104) ‘權友馬山支會 設立大會盛況’, 『동아일보』 1929년 3월 18일자; ‘權友馬山支會’, 『조선일보』 1929년 3월 18일자.

105) ‘馬山權友支會 집행위원회’, 『동아일보』 1929년 5월 17일자; ‘權友馬山支會 강연회 성황’, 『동아일보』 1929년 5월 24일자; ‘權友馬山支會 委員會를 開催’, 『조선일보』 1929년 5월 21일자; ‘權友馬山支會 染色問題 講演’, 『조선일보』 1929년 5월 25일자.

106) ‘馬山權友大會 십이일에 개최’, 『동아일보』 1930년 4월 7일자; ‘馬山權友大會 지난 십이일’, 『동아일보』 1930년 4월 16일자; ‘馬山權友大會’, 『조선일보』 1930년 4월

독립교회 예배당에서는 마산청년동맹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마산청년동맹은 1928년 12월 4일 저녁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제1주년 기념축하식을 개최하였으며,¹⁰⁷⁾ 이어 1929년 2월 18일 저녁에는 제2회 임시대회를 약 80여 명의 맹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하였다.¹⁰⁸⁾ 마산청년동맹 제2회 정기대회는 당초 같은 해 4월 2일 저녁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마산경찰서 고등계의 금지 조치로 인해 4월 5일 저녁으로 연기되어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서는 일제 경찰의 지시로 대회 선언의 낭독이 금지되었고, 마산노동연맹 등에서 보낸 축문은 불온하다는 이유로 압수당하였으며,¹⁰⁹⁾ 1929년 12월 13일 저녁에는 마산청년동맹 제3주년 기념식이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되었다.¹¹⁰⁾ 마산청년동맹이 주최하는 강연회 또한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활발히 개최되었다. 마산청년동맹 여자부는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1929년 3월 8일 저녁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고, 김귀동의 「국제부인데이 유래」, 김종신의 「조선 여성운동」, 여해의 「부인운동의 의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¹¹¹⁾ 1929년 7월 7일 밤에는 마산청년동맹 주최, 신간회 및 근우회 마산지회 후원으로 하기위생강연회가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으며, 하태용의 「적리에 대하여」, 고상목의 「건강과 치과」 등의 강연이 이루어졌다.¹¹²⁾ 또한 1930년 4월 22일 밤에는

8일자; '馬山權友支會', 『조선일보』 1930년 4월 16일자.

107) '靑盟紀念式 準備', 『동아일보』 1928년 11월 30일자.

108) '馬山靑年同盟 臨時大會 盛況', 『동아일보』 1929년 2월 21일자; '馬山靑年同盟', 『조선일보』 1929년 2월 22일자.

109) '嶺南地方 ●馬山靑盟委員會', 『동아일보』 1929년 3월 21일자; '靑年同盟大會', 『동아일보』 1929년 3월 31일자; '馬山靑盟大會 宣言祝文等 押收', 『동아일보』 1929년 4월 9일자; '馬山靑年同盟', 『조선일보』 1929년 4월 9일자.

110) '馬山靑盟 三週 紀念式', 『조선일보』 1929년 12월 16일자; '馬山靑年同盟 三週 紀念 盛況', 『동아일보』 1929년 12월 17일자.

111) '國際婦人테- 講演', 『동아일보』 1929년 3월 6일자.

112) '夏期衛生講演 마산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9년 7월 3일자; '夏季衛生講演 馬山靑

김귀동과 김영신을 강사로 초청하여 미신 타파 및 결혼문제를 주제로 한 순계강연회를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유 없이 마산경찰서에 의해 강연이 금지되었다.¹¹³⁾

마산소년동맹의 행사 또한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마산소년동맹이 주최한 조선소년총동맹 제1주년 축하식은 1928년 10월 16일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으며,¹¹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현상동화대회 또한 1929년 1월 5일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¹¹⁵⁾ 1930년 2월 6일에는 마산소년동맹 제3주년 기념식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마산경찰서의 금지 조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¹¹⁶⁾ 한재(旱災)로 고통받는 경북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산소년동맹은 조선·중외·동아일보 마산지국의 후원을 받아 마산부 내 각 소년단체와 연합하여, 1929년 5월 28일 저녁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경북 기근구제연예대회를 개최하였다.¹¹⁷⁾ 이외에도 독립교회 교회당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산무산소년회가 주최한 전마산소년소녀현상동화대회는 1929년 1월 25일 저녁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마산경찰서의 금지 조치로 인해 행사가 무산되었다.¹¹⁸⁾ 같은 해

맹에서, 『조선일보』 1929년 7월 5일자; ‘衛生講演 盛況 륙일 마산에서’, 『조선일보』 1929년 7월 11일자.

113) ‘馬山府 市民=大運動會 開催’, 『조선일보』 1930년 4월 10일자; ‘馬山靑盟 主催講演會를 禁止’, 『조선일보』 1930년 4월 18일자.

114) ‘少總紀念 祝賀準備’, 『동아일보』 1928년 10월 17일자.

115) ‘馬山少盟 主催 懸賞童話大會’, 『조선일보』 1928년 12월 29일자; ‘全馬山懸賞童話大會 盛況裡에 終幕’, 『조선일보』 1929년 1월 9일자.

116) ‘馬山少年同盟 三週紀念 禁止’, 『조선일보』 1930년 2월 5일자.

117) ‘救濟演藝會 馬山少年同盟서’, 『동아일보』 1929년 5월 19일자; ‘馬山少年同盟에서 饑饉少年救濟’, 『동아일보』 1929년 5월 28일자; ‘馬山少年救飢 演藝會 大盛況’, 『조선일보』 1929년 6월 2일자.

118) ‘全馬山 少男女 懸賞童話大會’, 『조선일보』 1929년 1월 21일자; ‘全馬山 懸賞童話會 開催’, 『동아일보』 1929년 1월 24일자.

8월 9일 오후에는 재외 마산유학생회의 제1회 정기총회가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¹¹⁹⁾ 또한 『동아일보』 마산지국은 마산상공협회의 후원을 받아 1930년 3월 20일 밤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손봉조의 「금해금(金解禁)과 경제계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¹²⁰⁾

경북 지역의 한재(旱災)와 관련하여, 경북기근마산구제회는 『조선일보』·『동아일보』 마산지국 및 근우회 마산지회의 후원으로 1929년 6월 4일 밤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구제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음악회는 시작 전부터 7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하는 등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독립교회 역시 경북기근마산구제회에 참여하여 참가 단체로서 동정금 6원 15전을 기부하였다.¹²¹⁾ 이어 1930년 8월 11일 밤에는 재외 마산유학생학우회 주최, 『조선일보』 마산지국과 백십자축음기상회 후원으로 수해구제연예회가 독립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¹²²⁾ 독립교회의 활동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언론의 보도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보도된 사례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이 동 교회 예배당에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립교회의 청년 교인들이 십자청년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마산청년동맹, 신간회 마산지회 등과 협력하여 마창사회단체협의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은, 독립교회가 지역 민족운동의 핵심적인 주체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동 교회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제공을 넘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119) '내 故郷 爲하야 留學生들의 活動', 『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자; '●在外馬山留學生定總', 『조선일보』 1929년 8월 20일자.

120) '金解禁 講演 마산서 성황', 『동아일보』 1930년 3월 26일자.

121) '音樂會 開催', 『동아일보』 1929년 6월 3일자; '馬山서도 音樂', 『동아일보』 1929년 6월 11일자; '馬山救濟會 音樂會 大盛況 純入金 七十圓', 『조선일보』 1929년 6월 11일자; '慶北飢饉 馬山救濟會', 『조선일보』 1929년 6월 23일자.

122) '水害救濟演藝會; 水災罹災民 救濟策을 討議', 『조선일보』 1930년 8월 5일자.

하다.

IV. 마산교회 분규와 독립마산예수교회의 분석과 평가

1. 마산교회 분규의 전개와 책임 소재

마산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독립마산예수교회는 1929년 9월 교회의 지도자였던 손덕우가 사망하고, 1930년 교역자로 활동하던 김산이 교회를 떠난 이후 그 전통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후 박승명이 후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약 1년간 목회를 담당하였으며, 1940년에는 일제의 강압에 따라 교회 명칭을 조선예수교 마산중앙교회로 변경하였다. 해방 이후인 1949년에는 감리교단에 편입되어, 현재는 감리교에 소속된 마산중앙교회로 존속하고 있다.¹²³⁾ 독립교회는 민중교회의 전통을 장기적으로 계승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28년 9월 신축 예배당을 건립한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마산 지역 사회운동의 주요한 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교회의 분규와 독립교회의 설립 및 활동은 그 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서술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특히 마산교회 분규의 발단으로 널리 알려진 박승명의 성추문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 교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박승명의 사면(辭免)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윤덕이와 이옥동 등이 제기한 성추문 의혹은, 교회의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다. 마산교회 당회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시 조사위원 5인을 증선(增選)하고, 교인 가운데 5인을 선발하여

123) 이 시기 독립교회에 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나, 마산중앙교회 홈페이지 역사자료실의 『마산중앙교회 72년 전사(1927-1999)』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masanjungang.org/> 2025년 12월 13일 접속.

사실관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조사를 거쳐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뒤, 당회와 공동처리회 등 교회 내부의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 박 목사를 무고한 윤덕이와 이옥동은 처벌을 받았고, 문제를 야기한 이상소와 이순필 장로는 사임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언론 또한 일관되게 박승명의 성추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마산지국의 기사는 박승명의 추문은 윤덕이와 이옥동이 “부언(浮言)을 주출(做出)”한 것으로, 이상소, 이순필 양(兩)장로가 “두 여자를 충돌하여 목사 and 교회를 상대로 경남노회에 고소를 제기”하게 했다고 지적하였다.¹²⁴⁾

경남노회는 두 차례에 걸쳐 박승명의 성추문에 대해 심의(審議)하였다. 『기독교신보』의 보도에 의하면, 1927년 1월 개최된 노회에서는 박승명의 “범죄한 증거는 충분치 못하고 동 씨가 목사 시무중 목회상 책임을 실(失)한바가 적지 아니함으로 본 부원들은 동 씨에 대하여 인책사임함을 권고하고 박승명 목사는 사면서를 제출하였기 밝는 것”으로 결의하였다.¹²⁵⁾ 노회는 윤덕이, 이옥동 등이 재판을 청구했으나 절차에 따라 별도의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지 않고, 인사부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고 채용(採用)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분규가 계속되자 1927년 7월 개최된 노회에서는 박승명을 위증, 노회 모욕과 반항, 강간미수의 죄명으로 기소하기로 결의하고 재판국을 설치하였다. 노회록에는 재판국을 구성한 이후에,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한 과정과 증거 및 판결문 등 박승명에 대한 재판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관련 자료는 『기독교신보』에 수록되어 있는 판결문만 확인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去) 1월 정기 노회 시에 작성하였다는 인사부 기록을 낭독하였는데 차(此)에는 박목사의 추행에 관한 유리한 증거가 8건이나 소연(昭然)이 기록되었는지라.

124) ‘馬山教會의 紛糾’, 『조선일보』 1926년 12월 25일자.

125) ‘마산교회 분규와 경남노회’, 『기독교신보』 1927년 1월 19일자.

소위 목사로서의 약시(若是)한 추행패덕(醜行悖德)이 유(有)하였다 함에는 장내의 공기가 일시 긴장"하였다고 하지만,¹²⁶⁾ 지난 1월의 「임사부 보고」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드레도 의심은 심히 농후케 되며 위증도 되기” 쉽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증거는 없었으며, 제23회 노회에서 박승명의 유죄 증거로 제시하고 보존하기로 결의한 박승명의 청원서와 편지 또한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다.

마산교회 분규를 반(反)선교사 운동으로 이해하는 해석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박승명과 함께 목회하던 맹호은은 박승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된 이후, 당회장으로서 적법한 당회와 공동처리회를 소집하고 직접 사회를 맡아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왔다. 경남노회의 개입으로 사건이 확대된 이후 1926년 12월 마산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임시노회가 무산된 뒤에도 그는 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동처리회를 소집하고 그 사회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927년 1월 열린 노회에서 맹호은은 “자기가 공동처리회 회장으로 공동처리회의 모든 일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자인(自認)하고 교회로 돌아왔다.¹²⁷⁾ 이후 맹호은은 교인들의 공동처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교인들은 임시 교인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그가 과거 스스로 사회를 맡았던 공동처리회의 결의 사항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교인들의 비판은 맹호은 개인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라기보다는, 정당한 교회 절차를 무시한 경남노회의 결정과 그러한 결정에 동조한 맹호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6) 동래에서 열린 경남노회 회회장의 광경을 보도한 이 『동아일보』 기사는, 이전의 마산 교회 관련 보도들과 달리 마산지국 기자가 아닌 동래지국 기자가 취재 · 작성한 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朴牧師 事件은 老會에서 判決코저’, 『동아일보』 1927년 7월 12일자.

127) (조선예수교 장로회)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제22회 회록」 34.

마산교회 분규를 서북과 비서북 지역 간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1927년 9월 원산에서 개최된 이른바 ‘서북계 장악의 총회’에서는 경남노회 문제 해결을 위해 마포삼열(Samuel A. Maffett, 평양노회), 함태영(함북 출신, 충청노회), 김석창(평북 출신, 평북노회), 홍종필(경북 출신, 전북노회), 김화식(평남 출신, 평남 안주노회) 등 5명의 특별위원을 선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서북 출신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들은 부산에 도착한 뒤 경남노회원들과 비밀리에 노회를 개최하고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서북 출신인 박승명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이순필 장로로부터 마산교회 당회의 상황을 청취하였다.¹²⁸⁾ 더 나아가 이들은 박승명과 마산교회 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경남노회의 판단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마산교회 분규를 단순히 서북과 비서북 지역 간의 갈등 구도로 설명하는 해석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총회 특별위원의 결의 이후 독립을 선언한 마산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박승명 목사의 개인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남노회의 재판을 통해 목사직에서 면직된 박승명은 자신의 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8년 9월 대구에서 제1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개최 직후, 서기가 제16회 총회 회록의 출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록 중 121페이지 특별부록(마산교회 별위원 보고)은 총회에 통과가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인즉 삭제하고 채용”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¹²⁹⁾ 마산교회 별위원장 함태영의 보고는 기각하고 안건을 재판부에 회부하였다.¹³⁰⁾ 경남노회 당국이 노회 회의록 등 관련 문서의 열람을 거부하는 등 재판부의 조사에 협조하

128) (조선예수교 장로회)경남노회,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임시회록」, 87.

129)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7회 회록』 7.

130) 위의 자료, 29.

지 않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총회는 폐회일에 임재형 외 4인의 특별위원을 다시 선출하고, 1개월 이내에 경사개정을 실시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남노회원의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경남노회 대표 8인이 총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회의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¹³¹⁾ 총회가 1928년 10월 파견한 위원들은 부산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경남노회는 다시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언론은 이러한 경남노회의 태도를 두고, “조선총회의 기반 아래 있을을 자처하는 그들로서 조선총회를 반역(反逆)”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³²⁾ 총회의 위원들은 마산으로 가서 마산교회의 장로파와 독립파 양파 대표를 모아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장로파에서는 총회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총회의 위원들앞에서 독립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분리는 박승명 목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다만 그것으로부터 발단되어 조선교회의 내부 흑막을 발견한 까닭임을 분명히 하였다.

독립교회에서 측에서는 어디까지든지 금번의 분리가 박 목사의 관계가 아니며 그것으로 발단되어 조선교회의 내부 흑막을 발견한 까닭인즉, 장로파에서 몸소 그 교정을 부인하고 그것을 혁신한 후 이쪽의 자치제도를 찬동한다면 어디 까지든지 합동해야 주겠다 하여 장로교회 암흑면을 여디업시 폭로하였더라.¹³³⁾

마산교회 교인 구성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회 내부에는 다수의 무산자(無産者) 교인들과 소수의 세력을 형성한 장로들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과 대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31) ‘代表 總退場’, 『동아일보』 1928년 9월 15일자.

132) ‘馬山教會問題=再燃되어 紛糾中’, 『조선일보』 1928년 10월 13일자.

133) ‘合同하겠거든 革新하라는 독립파의 성명’, 『조선일보』 1928년 10월 13일자.

언론은 이른바 ‘세력 있는 장로들’이 교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다수 교인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 장로들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다수 교인들의 불만이 누적되었고, 박승명 목사의 부임 이후 이들 장로가 조직적으로 목사를 배척하면서 분규가 본격화되었다. 다수 교인들은 당회와 공동처리회 등 교회 내부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박승명 목사 배척 문제는 교회내에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교인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동처리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수 장로들의 세력만으로 교회를 좌우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며, 맹호은 역시 공동처리회를 주재하면서 그 결의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위원회 또한 평신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문제 해결은 교회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장로들 역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교인들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당시 교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식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로 사안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일부 장로들과 연계된 경남노회장 김길창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갈등은 다시 확대되었다. 경남노회는 마산교회 교인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도출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인들의 공적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마산교회 교인들의 대응 방식이다. 교인들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지속적인 질의와 해명 요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 내 제도와 법, 그리고 공정한 절차와 상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반면 노회와 총회에서 파견된 이들은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끝까지 노회와 총회라는 교단의 제도적 권위를 존중하며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마산교회 분규는 특정한 신학적 입장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의 정의와 상식,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마산교회 교인들은 ‘조선교회의 내부 흑막’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다수 교인을 배제한 채 소수의 목회자와 교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민주적 교회 구조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경남노회가 마산교회를 사실상 좌우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거부한 행태는 언론으로부터 ‘반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독립교회 설립으로 귀결된 이 사건은 장로교회 내부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으며, 이후 반복되는 교단 분열의 전조(前兆)로 이해될 수 있다.

2. 마산교회 분규의 언론 보도 양상과 지역사회 반응

마산교회의 분규와 그에 이어진 독립교회의 역사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준다. 마산 지역사회는 이 분규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고, 일반 언론 역시 교회 지도층 중심의 시각을 넘어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는 마산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사립창신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공공적 역할을 기대받아 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마산 지역에서의 교회 분규는 단순한 교회 내부 갈등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 사회 질서를 주도하던 핵심 기관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역 언론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결과 마산의 지역적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시대적 책임 의식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평가함으로써, 마산교회 분규를 교회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론장의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적극적 보도는 오늘날 독립교회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료를 남겼다. 교회의 공식 문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독립교회의 위상과 활동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마산 지역사회와 언론의 개입은 당시 교회가 지역에서 차지하던 공적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언론이 주목한 핵심은 교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그리고 갈등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의와 민주성의 문제였다. 결국 언론의 판단에 따르면, 마산교회 분규의 본질은 교리나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운영 방식, 그리고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외부에서도 평가 가능한 공적 영역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마산 지역 기자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없으나, 『동아일보』 기자 여해(본명 여병섭)는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1920년 12월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청년회연합회 창립총회에 마산구락부 대표로 참석하여 의사(議事)로 선출되었고, 1922년 4월에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무렵부터는 노농(勞農)운동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1927년에는 신간회 마산지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활동하였다.¹³⁴⁾ 이러한 이력은 언론의 보도를 단순한 반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하며, 교회에 대한 비판이 무관심이나 적대가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외일보』 마산지국 기자는 “마산기독교회 문제와 조선기독교도의 이면과 내용을 적발하며 사회의 여론과 비판을 구하는 동시에 일반 기독교도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마산기독교회의 분규를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투고하였다. 이는 기독교

134)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정보,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

2025년 12월 13일 접속.

도들의 ‘맹성(猛省)’을 요구한 비판이 교회와의 단절을 뜻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교회의 공적 책임과 갱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이제 마산교회의 분규 진상을 축조적으로 상술하려면 참으로 소설 이상의 대활극이라. (중략) 오-조선기독교도들이여! 금일은 20세기이다. 군 등이 그런 상식과 그런 두뇌를 가지고 엇지 금일 이십세기 신무대에 출마하는가. 반성하여야 할지니 무엇을 가지고 신도 교도(教導)의 임(任)에 취(就)하였는가. 군 등이 무엇을 아는가. 과연 현대 청년을 교도할만한 성서의 지식을 가졌는가. 과연 진리탐구에 뇌장(腦醬)을 짜보았는가 (중략) 맹성하여라. 사람을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하기는 고사하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기 (하략)¹³⁵⁾

3. 독립마산예수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마산교회 분규를 거쳐 설립된 독립마산예수교회는 평신도 주도의 민중교회로서 독자적인 역사적 위상을 지닌다. 그 설립은 단순한 교회 분리나 일탈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교권 중심의 구조를 거부하고 ‘예수의 근본 정신에 입각한 민중 본위의 교회’를 구현하고자 한 실천적 결단이었다. 이는 목회자 주도의 반교권 운동이 아니었다. 평신도의 신앙과 삶을 교회의 중심에 두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의 민중교회적 실천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독립교회는 이러한 강령을 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교인 다수가 기존 마산교회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창예배당의 소유권 분쟁을 중단하고, 자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다. 나아가 이 예배당을 신간회 · 근우회 · 청년동맹 등 지역 사회단체의 활동 공간인 ‘공회당’으로 개방함으로써, 교회를

135) ‘馬山基督敎會의 紛糾를 論함’, 『중의일보』 1928년 10월 8일자.

지역 공공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던 당시에도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십자 청년회의 마창사회단체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기독교의 공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그 결과 독립마산예수교회는 평신도 주도의 민중교회이자, 지역사회와 협력한 공공교회라는 두 측면에서 뚜렷한 위상을 확립하였다.

마산 지역의 민족운동 세력은 교회 분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무산 민중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지향한 독립교회 교인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에는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독립교회의 활동은 당대에도 주목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1929년 새해를 맞아 「조선 종교계와 그 장래」라는 기획을 통해 불교의 박한영, 천도교의 이종린, 동양철학의 김증세, 기독교의 김창제 등에게 원고를 청탁하였다. 김창제는 「무산민중을 본위로 한 통일적 신교회를 제창」이라는 글에서 기독교가 조선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한 뒤, 향후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① 교파 타파와 통일적 신교회 창설, ② 민중·무산자 본위의 교회 지향, ③ 종교가의 정신 회복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어 독립마산예수교회를 이러한 방향을 실천한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며,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와 진리의 불변성을 강조하였다.

여(余)는 금일 기독교회에 대하여 다대한 불만을 가지는 동시에 짊어서 다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별서 이 희망이 헛되지 아니한 일조서광(一條曙光)조차 보입니다. 민중의 사상(思想) 상에 나타난 언론으로만 아니라 별서 구체적 사실로 출현한 것입니다. 보시오 저 완고한 교회인들은 반역시하고 이단시할 것도 당연하지마는 여로서는 다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응시(凝視)치 아니할 수업습니다. 이는 곳 마산의 신교회올시다. 저들은 청년들이오 무산자들

인 동시에 위대한 사상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역자들은 상당한 신 지식과 종교수양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자작자급(自作自給)으로 교육회를 경영하고 기성교회를 경영하고 기성교파를 초탈한 순연한 독립교단이올시다. 『프로테스탄트』의 창조(創祖) 『루터』와 『푸리탄』의 조선(祖先)-필그림립과 테쓰의 정신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저 마산의 신교단의 의거와 건전을 축(祝) 하나이다. 조선의 극남(極南)인 마산포 일우(一隅)에서 일어난 일단의 교도(教徒)는 근래에 파다(頗多)한 노소의 층돌이라고 경경(輕輕)히 간과할수 업습니다. 적어도 금일부터는 기독교청년의 흉저(胸底)에는 엇더한 공명이 잇슬줄로 믿고 감히 일언(一言)으로써 대(代) 합니다.¹³⁶⁾

동시에 독립교회의 활동은 1920~30년대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인식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사례는 양자가 필연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지역적 조건 속에서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실제로 독립교회 예배당은 신간회와 근우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성향의 단체들과도 공유되었으며, 이는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지역 민족운동의 현장에서 실천적 차원에서 연대하고 협력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4. 마산교회 분류에 관한 기존 교회사 서술의 비판적 검토

마산교회 분류와 그에 이어진 독립교회에 대한 기존 교회사 서술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체로 노회록과 총회록 등 교단이 생산한 공식 문서에 의존해 사건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단의 제도적 판단과 공식 입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이지만,

136) '無産民衆을 本位로 한 統一的 新教會를 提唱', 『조선일보』 1929년 1월 1일자.

그것만으로 갈등의 실제 전개 과정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복원하기에는 분명한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노회록과 총회록을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교단 내부에서 판단과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가되었는지, 그리고 평신도들의 문제 제기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는지는 부분적으로만 드러날 뿐이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교단의 판단을 사실상 전제한 채 사건을 정리해 온 경향이 강하다. 일부 선행 연구는 당시 언론 보도를 전혀 배제하지 않았고, 독립교회의 강령이나 표방 이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조차 독립교회가 성추문으로 축출된 목회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기존의 설명을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독립교회 설립의 동기와 주체를 충분히 재검토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사 서술이 주로 교단과 교역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이해해 왔으며, 그 결과 교회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왔음을 보여준다.

독립교회의 경우, 장로교단을 이탈하였다는 점, 교리나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교회 운영의 절차와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에서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는 성격으로 인해 다른 자치·자유 교회 사례들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교역자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나 지역적 갈등으로 축소되어 이해되었고, 평신도들의 집단적 선택과 실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었다. 이는 한국교회사 서술이 구조적으로 교단 중심, 교역자 중심의 관점에 의해 규정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교역자의 시각을 넘어, 교회의 실제 구성원인 평신도들의 행위와 선택, 그리고 교회가 놓여 있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신앙이 교회 제도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독립교회의 역사는 교회 분열의 결과로 환원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민중 속에서 공공성을 실천하고 민족운동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다. 나아가 이 사례는 신앙을 단순히 ‘무엇을 믿는가’라는 교리적 차원에만 한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신앙은 그 내용뿐 아니라, 그 믿음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천되는가의 문제와 결부될 때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 속 기독교를 신앙의 내적 차원과 사회적 실천의 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마산 예수교회의 역사는 그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한국교회사 서술이 교회 내부의 질서와 판단에 머무르며 간과해 온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마산교회 분규의 전개 과정과 책임 구조, 평신도들의 자발적 실천, 지역사회와의 연대 양상을 종합적으로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마산예수교회가 단순한 교회 분열의 산물이 아니라 평신도 주도의 교회 개혁운동이자 1920~3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중요한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박승명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사건이며, 목회자를 추종한 집단의 일탈이자 교회 내부의 지역적 대립이라는 기존의 통설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독립교회가 기존 연구에서 1920~30년대 자치·자유교회 운동의 하나로 설명되어 왔으나, 그 성격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만집의 ‘자치교회’나 이용도의 ‘예수

교회' 등 목회자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 자치·자유교회 운동과 달리, 독립마산예수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교회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사적 위치를 차지한다.

독립마산예수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교회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고 소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평신도들은 판단의 근거와 결정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질문하였으며, 교역자나 제도에 모든 판단을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주체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였다. 이는 교회의 건강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교회가 외부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교회 외부는 교리나 신앙의 세부 내용 자체보다, 그 믿음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천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교회는 최소한의 상식과 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단순한 적대나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특히 10~20대의 종교적 무관심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을 고수하기보다 그들의 문제의식과 관점을 진지하게 경청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한편 독립마산예수교회의 전통이 이후 지속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활동 외에 독립교회의 후속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공백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이후 독립교회의 행로를 추적하는 작업은 마산 지역사 연구는 물론, 한국 교회사 연구 전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러한 후속 연구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형윤. 『마산야화: 김형윤 유고집』. 서울: 대화출판사, 1973.
-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 양명득 편역. 『호주선교사 프레더릭 매크레이, 이다 맥피, 메이지 테잇』. 고양: 나눔사, 2024.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2(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2.
-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홍성표. “연회전문의 ‘기독교주의’와 강성갑 목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56(2023), 437-472.
- 회의록 1: 1916-1929.
- 총회 제16-19회.
- 『기독신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외일보』.
- 『경남노회 회의록 1: 1916~1929』.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6~19회 회록』.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마산교회 분규는 교회 내부 갈등을 넘어 경남노회와 장로회 총회가 개입한 사건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며 지역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 장로들의 박승명 목사 배척으로 촉발된 이 분규에서 교인들은 교단 절차에 따른 해결을 시도했으나, 노회의 부적절한 개입과 총회 특별위원회의 편향된 판단으로 갈등은 심화되었다. 결국 독립교회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총회의 재조사 결정마저 노회가 거부하면서 분규는 종결되었다.

독립교회 설립은 흔히 박승명 목사가 주도한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승명은 중심적 행위자가 아니었으며, 분규의 전개와 독립교회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체는 평신도들이었다. 이들은 목사 중심의 교회 구조를 넘어 평신도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중교회를 지향하였다. 독립마산예수교회는 평신도 주도의 교회 개혁운동이자 1920~30년대 지역사회와 연대한 기독교 사회운동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주제어: 민중교회, 평신도 주도 교회개혁운동, 기독교사회주의, 신간회 마산지회, 근우회 마산지회, 마창사회단체협회, 박승명.
